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1월 둘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국제화장품원료집(ICD)에 한글성분명 표기된다
한·중 FTA, 대중 수출 유망품목 1위 '화장품'
K-Beauty, 러시아라는 거대시장을 공략하라

법령 정보 14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발표

협회 업무추진현황 18

회원사 소식 21

화장품 정보

Korea
Cosmetic
Associatio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주간코스메틱, 2015년 결산 화장품 10대 뉴스 정리 ('15.12.23)

① 한·중 FTA 발효 불구 화장품 수혜폭 미미, ② 전자상거래 중 역직구 급성장, ③ 한국 화장품, 중국서 화장품 수입국 2위 차지 ④ 메르스로 인한 국내 화장품 내수시장 침체 ⑤ 자국 산업 보호 위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⑥ 에어쿠션 돌풍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⑦ 화장품 업계 기업 상장 열풍 ⑧ 아모레퍼시픽-LG 생건, 특허분쟁 종지부 찍었다 ⑨ 연예 엔터테인먼트사 화장품 사업 진출 잇따라 ⑩ 아모레퍼시픽 창립 70주년 맞아 등 2015년 화장품 산업의 큰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함

관련링크: <http://www.geniepa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36>

식약처, 일대일 상담 화장품업체 수출 애로센터 개설 ('16.1.15)

● 현재 중소 화장품업체들은化妆품을 수출하려고 해도 수출국별로 까다로운 통관기준과 허가절차에 막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 화장품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함

● 식약처는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해 중국과 베트남 등 거점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주재관을 통해 중소 화장품업체의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기로 했으며, 품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중국 검역 당국 등과 협의해 한국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민간 검사기관에서 받은 중소 화장품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AKR20160114166300017.HTML?input=1195m>

[정부 업무보고]화장품·패션·문화콘텐츠 수출 4조 8천억 지원('16.1.14)

● 양적 성장에 주력해온 우리나라의 수출 정책이 질적 변화를 모색하며 전면 혁신되며,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수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 소비재와 서비스 무역금융에만 4조 8천억원이 지원됨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확대를 주제로

내세운 이날 산업부의 업무 보고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혁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임

관련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266>

중국 화장품 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16.1.12)

● 중국 화장품 전문 신문사 C2CC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을 개정하고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1카드름, 1,4-다이옥세인, 납, 비소, 석면 등 성분에 대해 감독관리가 강화됨

● 화장품의 중금속 안전성 위험 물질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납의 제한량을 40mg/kg에서 10mg/kg으로 조정했으며, 비소의 제한량을 10mg/kg에서 2mg/kg으로 조정했으며 카드뮴의 제한량은 5mg/kg으로 증가시켰음

- 관련링크: <http://www.etnews.com/20160112000464>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한글성분명 표기된다('16.1.12)

●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2월 발간 예정인 ICID 제 16개정판(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 book, 16th edition 2016)에 한국어로 된 성분명칭이 표기된다고 밝혔음

●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영어 외에 ICID에 외국어로 등재되는 3번째 국가가 됐으며, 이번에 한글로 표기되는 화장품 성분은 모두 1만 4,364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장품 원료가 포함됨

관련링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192398>

피부 가꾸는 중국 남성 늘었다..."화장품 업계 주목해야('16.1.12)

최근 외모에 신경 쓰는 남성을 일컫는 그루밍족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스킨, 로션 뿐 아니라 에센스, 크림,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부터 자외선 차단제, 비비크림 등 메이크업 제품까지 구매 품목을 늘려가면서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도 경제력 있는 20~40대 신세대 남성을 중심으로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12일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중국의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 시장 규모는 11억4000만 달러로 2009년 이후 연평균 20%대 성장률을 기록해왔음

관련링크: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5>

및 중국 진출 한국업체 336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화장품이 20.5%의 비중으로 1위에 선정됨

–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중 FTA로 인한 화장품의 실질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음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0555/cat/10>

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 등 총 7개 기술 인증 ('16.1.12)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15년 제3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분야

의 7개 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음

– 보건신기술(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

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NET 인증마크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로 가능함

관련링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246430&code=46111201&cp=nv>

지자체, 화장품 뷰티 산업 육성 조례 제정 '활발' ('16.1.12)

– 지방자치단체가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화장품 뷰티 산업을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2016년 1월 현재 화장품 뷰티 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 7곳임

–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경기도를 시작으로 매년 1~2곳씩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대구시, 대전시가 잇따라 화장품 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음

관련링크: <http://www.etnews.com/20160112000452>

한·중 FTA, 대중 수출 유망품목 1위 '화장품' ('16.1.14)

– KOTRA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바이어

국내외 정보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정하고 있음
 - 보고시기: 정기보고의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ezcos.mfds.go.kr>)를 통해 보고
[예시] 1월 ~ 6월 수집정보: 7월 중 보고, 7월 ~ 12월 수집정보: 다음 해 1월 중 보고
 - 보고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바이오생약 정보) → 화장품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 게시물에 첨부된 사용자 지침서 참조
- ※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
- ※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매뉴얼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의약외품 탈모방지제 재평가 관련 컨소시움 구성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탈모방지제 재평가 실시 공고(‘15.12.22)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분류번호4210) 328품목(135개사)은 효능·효과 입증 자료 등을 ‘17.5.31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인체시험계획서는 ‘16.3.31까지 제출)해야 함.
 -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서로 다른 업체의 동일 품목(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 제형, 용법·용량이 동일한 제제)은 해당 업체 간 상호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업체들의 컨소시움을 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주(‘16.1.18~)부터 컨소시움 구성 등에 대한 회의가 협회에서 개최될 예정임.

● 해외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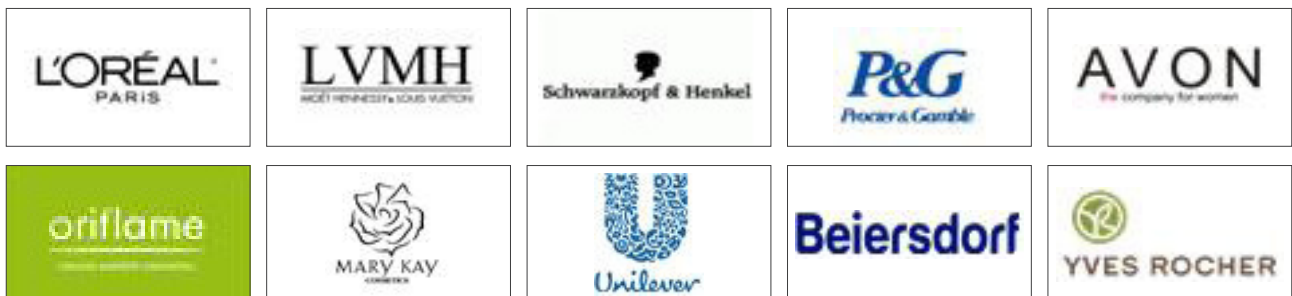
K-Beauty, 러시아라는 거대시장을 공략하라

러시아 화장품 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성장 중

러시아 화장품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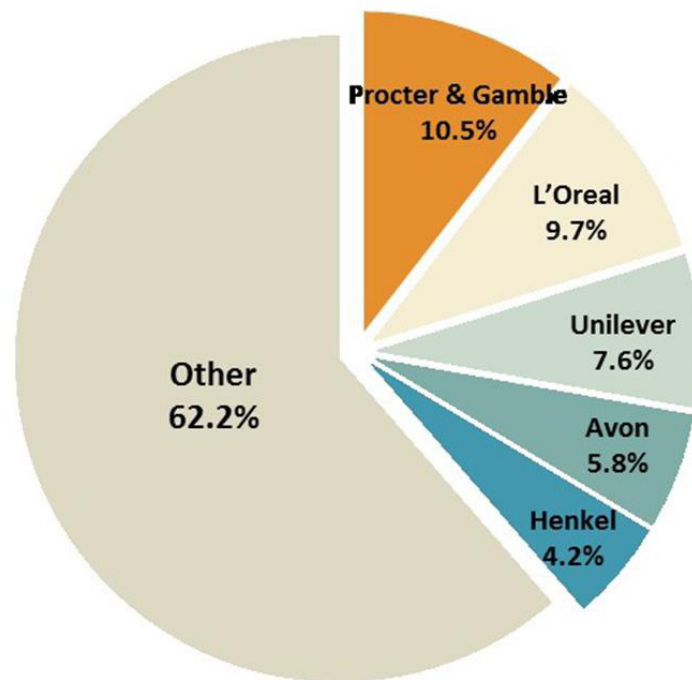
-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소매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2011년 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후 매년 6~12%의 시장 성장률을 보임.
 - 2010년 대비 2015년 시장규모 약 73.6% 성장
- 러시아 여성 화장품 1회 구매 시 평균 지출액은 경제악화로 다소 감소했으나 미미함.
 - 2014년 4분기 평균 1174루블, 2015년 1분기 평균 1160루블
- 러시아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여성들의 미(美)에 대한 높은 관심
 - COMCOM의 시장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은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12%를 화장품 구매에 사용
 - 다른 나라 여성들에 비해 소득 대비 화장품 구매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
 - 대도시일수록 화장품 매출액이 높으며, 이는 러시아 인구의 74%가 도시에 밀집해 거주하기 때문임.
 - 모스크바 화장품 연매출액은 1200억 루블이며 러시아 전체의 17%를 차지
- 수입의존도가 높은 시장구조
 - 2014년부터 대서방 수입제재가 있었으나, 화장품 부문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었음.
 - Procter & Gamble, Unilever and Beiersdorf(Nivea brand)는 저가 제품 판매에 주력해 P&G는 시장 점유율 1위를 5년간 선점 (2010~2014년), Unilever는 2010년 2.1%에서 2014년 7.6%까지 점유율 확대에 성공함.

러시아 화장품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해외브랜드



자료원: Euromonitor, google

러시아 화장품 시장 해외브랜드 Top 5 (2014년)



자료원: Euromonitor

대러 화장품 수출국 순위

(단위 : 백 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3	2014	2015 (1~9월)	15/14 (동기대비)
1	프랑스	1065	951	477	-30.8
2	독일	553	513	254	-35
3	이탈리아	281	272	129	-32
4	폴란드	232	211	120	-21.6
5	미국	257	208	113	-26.4
6	영국	197	198	100	-24.6
7	아일랜드	171	163	98	-21.9
8	중국	122	130	81	-14.8
9	스위스	112	99	61	-15
10	루마니아	93	96	50	-28.7
17	대한민국	17	27	17	-11.4
	합계	3901	3622	1864	-29.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대러 수출 상위국 대부분이 유럽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유일하게 상위 10위 내에 위치. 러시아 내 제품인지도가 높은 일본의 수출액은 2015년 기준 16위로, 17위인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루블화 평가절하, 경제침체로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줄었으나, 한국은 그 중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현지 유통 동향

- 화장품 전문 판매체인의 강세
 - 대다수의 외국 브랜드들은 화장품 전문 판매체인(소매업체)들과 직접 계약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음.
 - Intercharm에 따르면, 2015년 기준 L'Etoile가 화장품 전문 판매체인 중 최고 판매량을 기록. 시장점유율은 9.5%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Ile de Beaute(3.6%), The Rive Gauche(6.0%)가 그 뒤를 이음.
 - L'Etoile, Ile de Beaute, The Rive Gauche에 입점한 브랜드들은 주로 해외 브랜드임.
 - L'Oreal(프랑스), Maybelline(미국), Dior(프랑스), Chanel(프랑스), Benefit(미국), Yves Saint Laurent(프랑스), Shiseido(일본) 등
 - 최근 5년간 판매체인점 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유통채널 비중도 49.9%로 가장 높음.

러시아 유통채널 비율



자료원: RBC,Research, Euromonitor, Association of direct sales

2010~2014년 러시아 전역 판매체인 점포 수 변화

점포 수	2010	2011	2012	2013	2014
	3800	4869	6050	7390	9350

자료원: RBC,Research

러시아 뷰티시장 트렌드 ①: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제품 선호

- 소비자들이 '뷰티'를 미(美)에서 더 나아가 건강 증진 목적으로 인식해 뷰티살롱 및 스파살롱의 수요 증가
 - 러시아 화장품 및 향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티에이징, 스파용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이는 살롱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
 - 이와 같은 추세로 국내외 브랜드 모두 다양한 피부와 두피 종류에 따른 여러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
- 2015년 1분기 Synovate Comcon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들은 다양한 헤어 관련 제품을 사용. 이를 통해 스킨케어만큼 모발제품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품목별 사용자 비율 (%)



자료원: Synovate Comcon

러시아 뷰티시장 트렌드 ②:

러시아에 부는 유기농, 천연 열풍

- 2013~2014년 사이 유기농, 천연제품이 새로운 분야로 등장
 - 유기농, 천연제품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화장품 판매량의 9%를 차지
- 판매량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했음.
- 온라인 판매채널 Greenmade, Fresh Cosmetics, Organity.ru 등
- 러시아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은 '천연',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이를 제품명에 포함하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해 점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천연 및 유기농 제품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러시아 뷰티시장 트렌드 ③:

러시아 자국 브랜드 수요 증가

- 최근 많은 러시아 브랜드들의 시장점유율 증가 중. 그 중 Natura Siberica는 시베리아에서 자라는 천연 재료를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많은 인기를 얻음.
- Natura Siberica는 2014년 시장 점유율 1% 달성, 점진적으로 점유율 증가 중임.
- 이 회사는 중간 가격대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나, 적극적인 마케팅 투자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
 - ICEA, COSMOS 기준 등 4개의 제품인증서 획득, 약 22ha에 달하는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펼침.

Natura Siberica 판매 제품 및 가격

(단위: 루블)

	용도	가격
	핸드크림	137
	데이크림	783
	어린이용 샴푸	246
	각질제거제	231

자료원: <http://www.utkonos.ru/>

러시아 현지 생산 및 러시아산 원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Synovate Comcon의 2015년 2월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21%가 러시아 생산 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음. 이는 2014년 9월 15%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 최근 소비자의 러시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시베리아산 허브와 같은 러시아 생산 재료에 대한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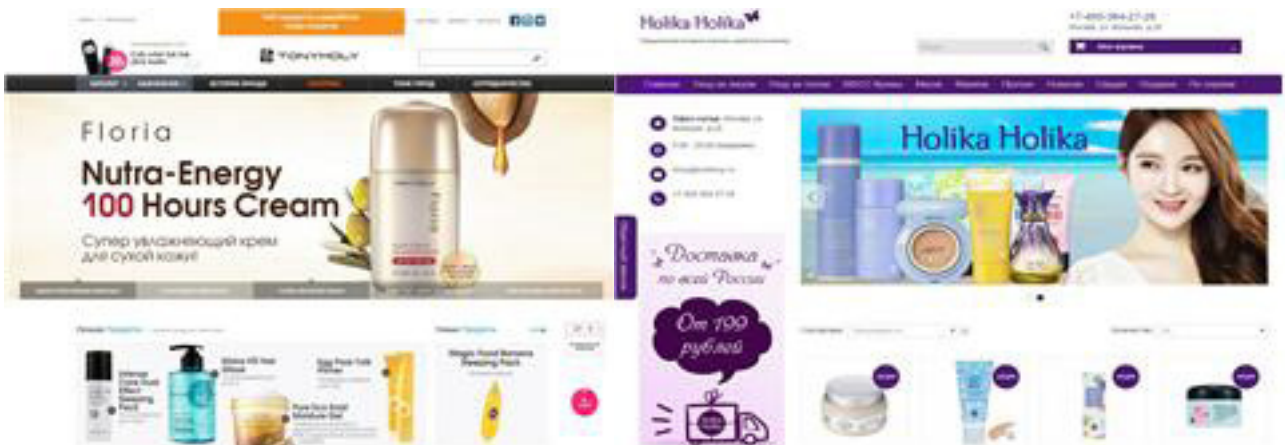
러시아 뷰티시장 트렌드 ④: 러시아 소비자, 양보단 품질

- Euromonitor에 따르면,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2014년 전년대비 약 3% 성장했는데, 그 중 6.3%는 고급 제품군. 이는 러시아 소비자가 과거에 비해 제품의 '양' 보다는 '품질'을 선호하게 됐음을 증명함.
-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 원료 등에 많은 관심을 보임.

성공적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K-Beauty

- 최근 한국 여러 화장품 브랜드가 러시아에 진출
 - Intercharm에 따르면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한스킨, 미샤, 홀리카홀리카, 네이처리퍼블릭 등 약 122개의 브랜드의 제품이 러시아에서 판매 중
 - 토니모리의 경우 현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10개 주요 도시에서 30개 매장 운영
 - 모스크바 외에도 올란우데, 하바롭스크 같은 지방 도시에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 존재

한국 화장품 브랜드 러시아 공식 홈페이지



자료원: tonymolrussia.ru/, <http://holishop.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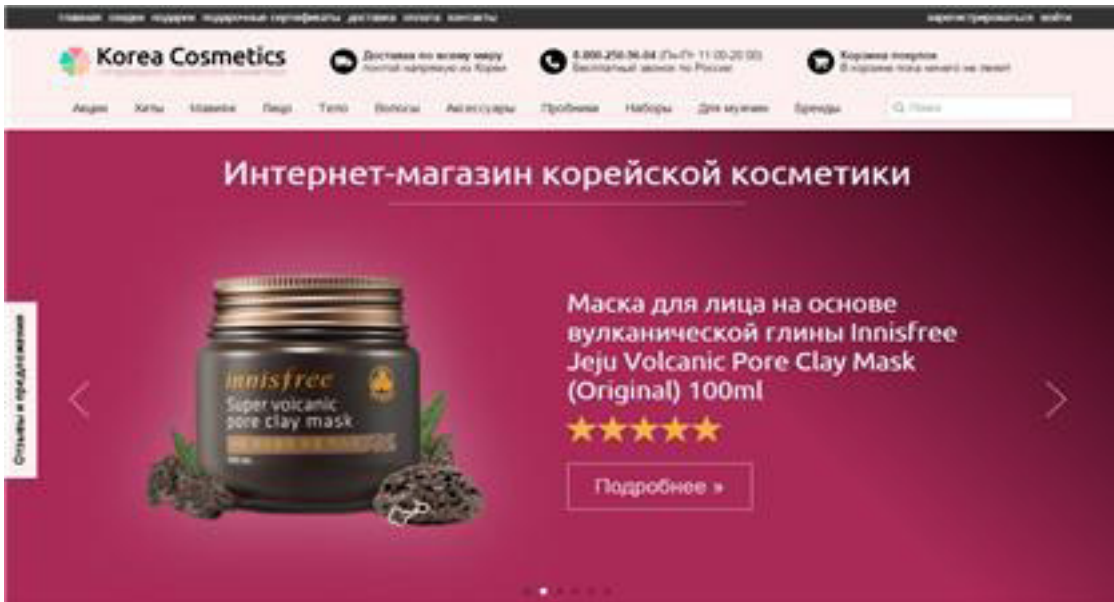
현지 매장 전경



자료원: Yandex

- 주요 유통경로는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만 판매하는 사이트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함.
- 러시아 내 한국 화장품 판매 사이트인 Korea-Cosmetics.ru의 인기 판매제품을 보면, 집에서 손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스크팩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피부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이 난 제품들의 인기도 높음.
- 동물, 알로에 모양과 같은 귀엽고 독특한 디자인이 인기가 높은 편. 이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음.

한국 화장품 전용 판매 온라인 사이트



전망 및 시사점

- 2016년 러시아 화장품 시장 전망
 - Intercharm에 따르면, 2016년 소매점 판매액 성장률은 2015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립스틱효과로 인해 고가의 제품보다는 중·저가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
 - 립스틱 효과: 불황기에 립스틱 같은 저가 화장품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 천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러시아 화장품 시장가치

(단위: 천억 루블)



자료원: RBC,Research

- 중저가 화장품 시장 내 러시아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경쟁 치열
 - 현재까지는 해외 브랜드가 기술, 마케팅, 홍보비용 등에 있어 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
 - 러시아 소비자들의 자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수입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러시아 제조업체들은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해외 브랜드와 러시아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시장 진입비용과 발전 비용이 증가함.
- 합작 브랜드로 진출 모색 가능
 - 최근 모스크바 대형 쇼핑몰인 아피몰에 프랑스-한국 합작브랜드인 Erborian이 오픈함.
 - 한국 천연재료를 이용해 생산한 한방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00~6000루블의 가격대
 - 시장 진입비용이 높은 만큼 단독브랜드 진출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합작브랜드 설립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아피몰에 오픈한 Erborian 매장 전경



- K-Beauty의 강점을 내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때
 - 러시아 소비자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 가격대임에도 품질은 유럽산 화장품에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 제품이 빛을 발할 것으로 사료됨.
 - 한국 전통 약재들을 사용한 한방라인이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필두로 마케팅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장 소도구 및 전동클렌저, 홈케어 제품 같은 미용도구 또한 한국 브랜드의 강점
 - 미용 관련 전시회 참가, 광고 및 프로모션 등 마케팅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Bedomosti, google, naver, yandex, Moscow Times, Euromonitor International, Intercharm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2015-12-8 모스크바무역관 〉

법령 정보

Korea
Cosmetic
Association

● 국외 법령정보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변화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판)발표(2015.12.23.)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판)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발표된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이어 발표된 목록이다.

본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포함된 원료의 수는 총 8,783개이며, 이는 중국에 출시된 화장품에 이미 사용된 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작성되어 발표된 것이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과 이전 목록에서 조정이 진행된 원료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발표하였으며, 기조정된 원료의 수는 153개이다.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关于发布已使用化妆品原料名称目录（2015版）的通知（2015年第105号）

2015年12月23日

为进一步加强化妆品原料管理，依据《化妆品卫生监督条例》等有关规定，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对2014年6月30日发布的已使用化妆品原料名称目录进行了调整更新，形成了已使用化妆品原料名称目录（2015版），现予发布。

特此通告。

附件：1. 已使用化妆品原料名称目录（2015版）

附件：2. 已使用化妆品原料名称目录调整内容

食品药品监管总局

2015年12月23日

 2015年第105号通告附件1.xls

 2015年第105号通告附件2.xlsx

※상기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발표(2015.12.23)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을 발표하였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은 위생부가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2007년판)의 개정판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규범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용어의 개념, 화장품 안전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을 포함; 제2장은 화장품 중 사용금지원료(1,388개) 및 제한원료(47개); 제3장은 사용가능성분(방부제51개, 자외선차단성분27개, 착색제157개, 염색제 75개); 제4장은 물리화학 검사방법(77종); 제5장은 미생물화학 검사방법(5종); 제6장은 독리학 검사방법(16종); 제7장은 인체안전성 검사방법(2종); 제8장은 인체효능평가 검사방법(3종)을 다루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명사와 전문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화장품안전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세분화 하였으며, 화장품사용금지원료, 사용량제한원료 및 사용가능원료목록과 화장품 검사방법이 수정되었다. 본 기술규범에서는 화장품 중 유해물질의 제한치도 수정하였다. 납의 제한량을 40mg/kg에서 10mg/kg로 조정하였고, 비소의 제한량을 10mg/kg에서 2mg/kg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카드뮴의 제한량은 5mg/kg으로 추가, 디옥산은 30mg/kg 초과검출금지, 석면 검출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关于发布化妆品安全技术规范（2015年版）的公告（2015年第268号）

2015年12月23日

《化妆品安全技术规范》（2015年版）经化妆品标准专家委员会全体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6年12月1日起实施。

特此公告。

附件：化妆品安全技术规范（2015年版）

食品药品监管总局

2015年12月23日

 2015年第268号公告附件.pdf

化妆品安全技术规范

Safety and Technical Standards for Cosmetics

2015 年版

※상기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음.

European Commission, Methylisothiazolinone 사용규제 개정(안)(2016.1.4)

- EU집행위원회에서의 규정 초안은 피부에 흡수되도록 닦아 내지 않는(Leave-on) 화장품에 보존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용규제 개정안을 발표함
- 채택 예정시기는 2016년 1/2분기이며, 시행 예정시기는 EU 관보 게재일자로부터 20일후, 규정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음
-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부속서 V는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임

Reference number	Substance identification				Conditions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Chemical name/INN	Name of Common Ingredients Glossary	CAS number	EC number	Product type, body part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Other	
a	b	c	d	e	f	g	h	i
'57	2-Methyl-2H-isothiazol-3-one	Methylisothiazolinone	2682-20-4	220-239-6	Rinse-off products	0.01 %1)		

1) Methylisothiazolinone is also regulated in entry 39 of Annex V in a mixture with methylchlorisothiazolinone. The two entries are mutually exclusive: the use of the mixture of Methylchlorisothiazolinone (and) Methylisothiazolinone is incompatible with the use of Methylisothiazolinone alone in the same product.

– 자료 출처: https://members.wto.org/cnattachments/2015/TBT/EEC/15_4997_00_e.pdf

– 다운로드 링크: https://www.kcia.or.kr/_Document/News/NEWS_020V.asp?dnSn=1737&tablename=B_NEWS

협회 업무추진현황

Korea
Cosmetic
Association

교육,세미나,행사 소식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 개최

● 우리 협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 1. 15(금),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및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는 총 304개사 354명이었으며, 2차설명회는 1월 28일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 실적보고 → 실적보고하러가기)를 통해 2월 29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조직 개편

- 대한화장품협회는 사무국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협회는 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를 도모, 팀조직을 우선 대외협력팀(국내 제도 개선 등 국내 업무 총괄, 팀장 송자은 차장), 국제협력팀(해외 법규 제도 등 해외 업무 총괄, 팀장 김경옥 차장)과 경영지원팀(총무, 홍보, 통계 업무 등 관리 업무 총괄, 팀장 임종근 부장)으로 구분 확대키로 하였으며, 기존 교육원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정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예정 행사	제67회 정기총회 개최	2.16(수) 11:0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식약처장 회장단 회의 및 식약처장과의 신년하례식	1.29(금) 11:00	롯데호텔 도림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1.26(화) 10:00~17:30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2차)	1.28(목) 14:00~17:00	서울 사학연금회관	

※2016년 전시회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in-cosmetics Europe 2016	2016.04.12~04.14	프랑스(파리)	모집중
2016코스모뷰티베트남전시회	2016.04.21~04.23	베트남(호치민)	모집완료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	2016.05.19~05.21	중국(상해)	모집완료
2016중국광주화장품미용박람회(추계)	2016.09.04~09.06	중국(광주)	
2016홍콩화장품미용박람회	2016.11.09~11.11	홍콩	

회원사 뉴스

Korea
Cosmetic
Association

● 세계 100개 화장품 기업

- 2014년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기업은 로레알 그룹이며, 유니레버, 피앤지, 에스티로더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전년 대비 매출 증대는 77개사, 매출 유지는 2개사, 매출 하락은 21개사였다.
- 100대 기업 순위권 안에 미국은 32개사, 프랑스는 15개사, 영국은 6개사, 일본은 12개사가 포함되었다.
- 한국 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이 14위, LG생활건강이 20위, 에이블씨엔씨는 57위를 기록했다

'14년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주요 기업 현황'

(단위 : 백만불, %)

순위	회사명	국가	매출액	점유율	2013년 대비 증감률
1	LOREAL	프랑스	29,940	14.4	1.8
2	UNILEVER	영국	21,660	10.4	1.5
3	PROCTER & GAVBLE	미국	19,900	9.5	-3.4
4	THE ESTEE LAUDER COS	미국	10,990	5.3	5.4
5	SHISEIDO CO.	일본	7,370	3.6	1.9
6	BEIERSDORF	독일	6,590	3.2	2.3
7	AVON PRODUCTS	미국	6,300	3.0	-12.0
8	CHANEL	프랑스	6,210	3.0	6.0
9	JOHNSON & JOHNSON	미국	6,000	2.9	-0.1
10	KAO CORP.	일본	5,600	2.7	3.4
14	AMOREPA CIFIC GROUP	한국	4,470	2.2	21.2
20	LG HOUSEHOLD & HEALTH CARE	한국	2,300	1.1	18.0
57	ABLE C&C	한국	438.3	0.2	-1.0
	총합계(100개사)		207,425	100.0	1.4

<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국가별 현황 >

자료 : WWD Beauty Report (2015)

국가	매출액	점유율
미국(32개사)	75,195	36.3
프랑스(15개사)	50,996	24.6
영국(6개사)	24,951	12
일본(12개사)	19,986	9.6
독일(7개사)	12,373	6
대한민국(3개사)	7,208	3.5
브라질(4개사)	4,767	2.3
인도(3개사)	2,137	1
이탈리아(6개사)	2,008	1
스페인(1개사)	1,770	0.9
룩셈부르크(1개사)	1,690	0.8
중국(4개사)	1,570	0.8
페루(1개사)	1,400	0.7
벨기에(1개사)	344	0.2
스위스(1개사)	339	0.2
바하마(1개사)	265	0.1
홍콩(1개사)	238	0.1
러시아(1개사)	188	0.1
총합계(100개사)	207,425	100

2014년도 매출액 기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단위 : 백만불, %

순위	회사명	국가	매출액	점유율	2013년 대비 증감률
1	LOREAL	프랑스	29,940	14.4	1.8
2	UNILEVER	영국	21,660	10.4	1.5
3	PROCTER & GAMBLE	미국	19,800	9.5	-3.4
4	THE ESTÉE LAUDER COS	미국	10,950	5.3	5.4
5	SHISEIDO CO.	일본	7,370	3.6	1.9
6	BEIERSDORF	독일	6,590	3.2	2.3
7	AVON PRODUCTS	미국	6,300	3	-12
8	CHANEL	프랑스	6,210	3	6
9	JOHNSON & JOHNSON	미국	6,000	2.9	-0.1
10	KAO CORP.	일본	5,600	2.7	3.4
11	LVMHMOET HENNESSYLOUIS VUITTON	프랑스	5,210	2.5	5.4
12	COTY	미국	4,490	2.2	-1.4
13	HENKEL	독일	4,480	2.2	1
14	AMOREPACIFIC GROUP	한국	4,470	2.2	21.2
15	L BRANDS	미국	4,450	2.1	14.1
16	MARY KAY	미국	4,000	1.9	14.2
17	COLGATE-PALMOLIVE CO.	미국	3,330	1.6	-1.2
18	NATURA COSMÉTICOS	브라질	3,160	1.5	5.7
19	ALTICOR	미국	2,410	1.2	-7.7
20	LG HOUSEHOLD & HEALTH CARE	한국	2,300	1.1	18
21	GROUPE ROCHER	프랑스	2,250	1.1	-5.1
22	REVLON	미국	1,940	0.9	29.9
23	KOSÉ CORP.	일본	1,920	0.9	11.8
24	GUTHY-RENKER	미국	1,830	0.9	1.5
25	PUIG	스페인	1,770	0.9	0.7
26	POLA ORBIS HOLDINGS	일본	1,750	0.8	3.5
27	GROUPE CLARINS	프랑스	1,740	0.8	1.2
28	ORIFLAME COSMETICS	룩셈부르크	1,690	0.8	-10
29	L'OCCITANE GROUP	프랑스	1,500	0.7	8.3
30	BELCORP	페루	1,400	0.7	-30
31	GROUPE PIERRE FABRE	프랑스	1,380	0.7	5.3
32	NU SKIN ENTERPRISES	미국	1,320	0.6	-5
33	GRUPO BOTICÁRIO	브라질	1,120	0.5	16
34	ELIZABETH ARDEN	미국	1,010	0.5	-21.7
35	EUROITALIA	이탈리아	902.9	0.4	8.7
36	BOOTS	영국	886.6	0.4	3.6
37	LUSH	영국	854.3	0.4	14.1
38	SISLEY	프랑스	848	0.4	4.8
39	DABUR INDIA LTD.	인도	767.2	0.4	10.1
40	RECKITT BENCKISER	영국	758.4	0.4	-
41	MARICO LTD.	인도	738	0.4	18
42	SHANGHAI JAHWA UNITED CO.	중국	720.8	0.3	11.4
43	JOHN PAUL MITCHELL SYSTEMS	미국	698.5	0.3	10
44	MANDOM CORP.	일본	664.3	0.3	4.1
45	GODREJ CONSUMER PRODUCTS LTD.	인도	631.4	0.3	10
46	ENERGIZER HOLDINGS	미국	600	0.3	-4.8
47	JAFRA COSMETICS INTERNATIONAL	미국	533.6	0.3	-12.9
48	ALLERGAN	미국	523.6	0.3	12
49	TUPPERWARE BRANDS CORP.	미국	521.2	0.3	-6.4
50	DHC CORP.	일본	510.4	0.2	-2.2

순위	회사명	국가	매출액	점유율	2013년 대비 증감률
51	PZ CUSONS	영국	506.5	0.2	-4.6
52	INTER PARFUMS	미국	499.3	0.2	-11.4
53	NATURAL PRODUCTS GROUP	미국	497	0.2	16.1
54	NIPPON MENARD COSMETIC CO.	일본	474.2	0.2	-4
55	FANCL CORP.	일본	463.6	0.2	5.9
56	MARKWINS INTERNATIONAL	미국	440.1	0.2	18.4
57	ABLE C&C	한국	438.3	0.2	-1
58	HOYU CO.	일본	434.4	0.2	2.3
59	NERIUM INTERNATIONAL	미국	403	0.2	94.7
60	NAOS LIGHTHOUSE	프랑스	390.8	0.2	15.2
61	BAYER CONSUMER CARE	미국	380	0.2	-2.6
62	COSNOVA	독일	371.2	0.2	12.9
63	JALA GROUP	중국	346.6	0.2	14.2
64	OMEGA PHARMA	벨기에	343.7	0.2	9.8
65	WELEDA	스위스	339.1	0.2	8
66	JIANGSU LONGRICH GROUP CO.	중국	327	0.2	6.4
67	HYPERMARCAS	브라질	313.3	0.2	8.6
68	NOEVIR HOLDINGS CO.	일본	307	0.1	2.9
69	HERMÈS INTERNATIONAL	프랑스	306.8	0.1	10.1
70	ATLANTIC COAST MEDIA GROUP	미국	306.6	0.1	5
71	ALCANTARA GROUPE	프랑스	302.5	0.1	4.2
72	VOGUE INTERNATIONAL	미국	300	0.1	25
73	BURBERRY	영국	285.2	0.1	53.1
74	BURT'S BEES	미국	270	0.1	12.5
75	CARTIER	프랑스	265.8	0.1	12
75	COLLISTAR	이탈리아	265.8	0.1	2.6
77	STEINER LEISURE	바하마	265.4	0.1	1.4
78	DR. WOLFF-GRUPPE	독일	264.5	0.1	18.4
79	RODAN + FIELDS	미국	260.2	0.1	68
80	COMBE	미국	255.6	0.1	2.3
81	BRYNWOOD PARTNERS	미국	254.4	0.1	2.3
82	LION CORP.	일본	252.8	0.1	4.7
83	ARTDECO COSMETIC GROUP	독일	243.4	0.1	4.2
83	NUXE GROUPE	프랑스	243.4	0.1	7
85	MAQUER & WIRTZ	독일	243.2	0.1	2.8
86	MICYS	이탈리아	241.9	0.1	-4.7
87	MILBON CO. LTD.	일본	239.7	0.1	5.9
88	LI & FUNG	홍콩	237.9	0.1	2
89	MURAD	미국	225	0.1	8.9
90	BOTTEGA VERDE	이탈리아	222.1	0.1	2.2
91	PDC BRANDS	미국	218.9	0.1	30.2
92	CAUDALIE	프랑스	206	0.1	14.8
93	LABORATOIRES EXPANSCIENCE	프랑스	202.8	0.1	10.4
94	KELLOGG MATA	이탈리아	196.7	0.1	-
95	FABERLIC	러시아	188	0.1	17.2
96	DR. BABOR	독일	180.5	0.1	6.7
97	HERBALIFE	미국	178.2	0.1	11.9
98	PAGLIERI	이탈리아	178.1	0.1	0.8
99	GUANGDONG MARUBI BIOTECHNOLOGY CO.	중국	175.7	0.1	10.5
100	NIELY DO BRASIL INDUSTRIAL	브라질	173.4	0.1	0.2
총합계 (100개사)			207,425	100	1.4

* 자료 : WWD Beauty Report (2015)

여성청결제 전문기업 하우동천, 29일 코넥스 상장

- 생리전용 여성청결제 '질경이' 출시 이후 지속적인 매출 신장, 홈쇼핑에서도 높은 판매량 기록함
- 국내 및 세계 특허 바탕으로 질염치료제 임상2상 승인, 시장 가능성 인정 받아 기관 투자 유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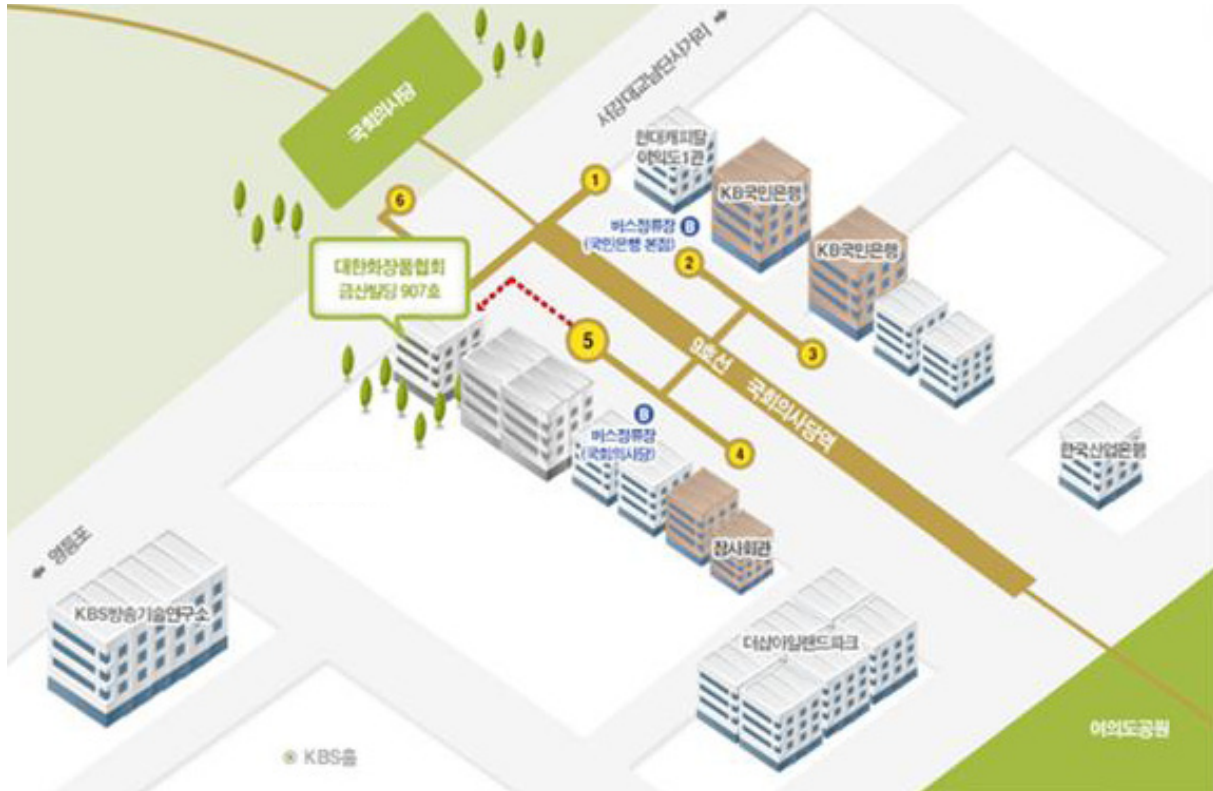
관련링크: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939>

여성청결제 전문기업 (주)하우동천, 기관투자자로부터 총 40억원 투자 유치

- 하우동천, 지난 달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네오플렉스(주), (주)DS벤처스, BNH인베스트먼트(유)로부터 투자 확정
- 시장 선두주자인 여성청결제 질경이 제품력과 질염치료제 개발 등 의약품 사업 잠재력 인정 받아

관련링크: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818>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